

기독교 대학생의 우울과 자살생각의 관계에서 영적 성숙의 조절효과*

정 속 희**

논문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기독교 대학생의 우울이 자살생각을 유의미하게 예측하는지를 파악하고, 영적 성숙 정도가 우울을 경험하는 기독교 대학생의 자살생각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감소시키는 조절효과가 있는지 검증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H 대학교 신입생 중 기독교 학생 80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우울, 영적 성숙 정도가 유의미하게 높았고, 경제수준이 낮을수록 영적 성숙이 유의미하게 높았으며 수시입학학생이 정시입학학생보다 영적 성숙이 높았고, 신앙생활기간이 길수록, 목회자 자녀가 일반자녀보다 영적 성숙이 높았다. 그러나, 성별, 경제수준, 신앙기간, 입학전형, 신앙생활기간, 목회자자녀여부에 따른 자살생각의 정도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둘째, 우울과 자살생각은 정적 상관관계가, 우울과 영적 성숙은 부적 상관관계가, 영적 성숙과 자살생각은 부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셋째, 기독교 학생의 우울 정도는 자살생각 정도를 유의미하게 예측하였다. 즉, 우울 정도가 심할수록 자살생각을 많이 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넷째, 기독교 학생의 우울과 자살생각과의 관계에 있어서 영적 성숙의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우울을 경험하는 기독교 대학생의 영적 성숙도가 자살생각을 경감시키는 보호요인임을 확인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기독교 대학생들의 영적 성숙을 위한 교회와 기독교 대학의 적극적인 노력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자살에 이르게 하는 정신건강요인에 대한 탐색을 위해 정신건강에 대한 사정의 필요성과 영성 탄력성 증진 프로그램의 개발, 기독교적 세계관에 근거한 자살예방교육 내용의 개발과 적극적인 자살예방교육의 필요성을 제안하였고, 기독교 대학 내에 자살예방과 자살문제에 개입할 수 있는 전문가 확보의 필요성과 영적 성숙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을 제안하였다.

주제어: 기독교 대학생, 우울, 자살생각, 영적 성숙, 조절효과

* 이 논문은 2012년도 한동대학교의 연구년 지원에 의하여 작성되었음.

** 한동대학교 상담심리사회복지학부 부교수

2013년 5월 3일 접수, 6월 22일 최종수정, 5월 30일 게재확정

I. 서론

최근 들어, 자살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이는 전염병처럼 우리사회를 병들게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자살예방협회의 보고서(2011:3)에 의하면, 2011년 자살 사망자가 1만 5905명으로 전년대비 340명(2.2%) 늘었다. 1일 평균 43.6명이 자살한 것으로 2010년의 42.6명보다 1.0명이 증가했고, 2001년의 18.9명보다 24.5명이 증가한 것으로 이는 우리사회의 자살문제의 심각성을 반영해 주는 수치이다. 인구 10만명 당 사망자수인 자살률은 31.7명으로 전년보다 1.7% 증가했고, 2001년의 14.4명에 비해서는 119.9% (17.3명)으로 급증했다. 특히, OECD 국가의 평균자살률 12.9명에 비해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33.5명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자살률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자살은 10대와 20대 사망원인의 1위이며, 대학생의 시기라 할 수 있는 20-24세의 2011년 인구 10만명 당 자살률은 17.7명으로 2000년의 11명에 비해 7명이 증가했다. 자살은 당사자뿐만 아니라 가족이나 친구, 사회적으로 말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안겨주기 때문에 개인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적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예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보건복지부는 2004년과 2008년 두 차례에 걸쳐 자살예방 종합대책을 추진하였으나 자살율은 증가추세에 있는 것이 현실이고(보건복지부·한국자살예방협회, 2011:1), 정부는 2011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자살예방법)을 제정하기에 이르렀다. 이는 자살예방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자살 위험자를 적극 구조하기 위하여 사전예방, 위기대응, 사후대응 등 단계별로 필요한 정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며, 사업주와 국민은 자살예방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자살문제에 있어서는 기독교인도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실제로 유명기독교연예인의 자살, 세계적인 기독교 지도자 자녀의 자살 소식은 기독교인도 자살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하고 있고, 그러하기에 기독교인의 자살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개입의 필요성을 말해주고 있다. 한편, 기독교인의 자살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는 매우 부족한 현실이다. 개신교인 513명을 대상으로 한 자살관련 연구(조성돈·정재영, 2008: 78-88)에서 개신교인 5명 중 1명이 자살충동을 느꼈고, 외로움과 고독이 자살을 계획했던 가장 큰 이유로 보고하였고, 응답자의 87%가 교회가 자살을 예방할 수 있는 실질적인 프로그램을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독교 대학생의 자살

생각에 대한 한 연구(정숙희·전명희, 2011: 243)에서는 기독교 대학생 499명의 조사대상자 중 약 10%가 경미한 수준이지만 자살생각을 한 적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발달주기 상 청소년 후기와 성인 초기에 해당되는 대학생 시기는 정체성 확립, 의존과 독립의 균형, 자율성과 선택에 따른 책임, 동성 및 이성과의 친밀관계 형성, 진로와 미래에 대한 모호함과 성공에 대한 압박감 등으로 복잡한 심리사회적 과제를 안고 있고(김정진, 2009: 414), 실제로 이는 심각한 정신건강의 문제를 초래하여 대학생들을 자살에 이르게 만드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자살의 가장 대표적인 원인으로 손꼽을 수 있는 것은 우울이다. 많은 선행연구들에서 우울이 자살생각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임을 밝혔다(신민섭 등 1990: 1-19; 노명선 외, 2007: 35-40; 김현순, 2009: 203-225; 정숙희·전명희, 2011: 231-254; 윤명숙·이효선, 2012: 109-137; 양경미·방소연·김순이, 2012: 41-50; Myrna, Martin, & Hammond, 1993: 21-27). 특히, 우리나라 대학생이 경험하는 우울 증상이 중고등학생의 우울증보다 훨씬 높아서 대학생이 더 심각한 정서적 부적응 상태에 있다는 연구결과(이은희, 2004: 25)가 있다. 그러나, 우울을 경험하는 모든 사람이 자살생각을 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우울을 경험하지만 자살생각에 이르는 과정에서 이를 감소시키는 보호요인에 대한 탐색을 통하여 자살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자살예방을 위해서는 위험요인을 줄여나가기 위한 노력과 함께 계속적으로 다양한 측면에서의 보호요인 검증에 대한 시도들이 이루어져 한다(박재연·윤현숙·임연옥, 2010: 83). 보호요인이란 위험요인에 노출되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력을 중재하거나 완화시켜 결과적으로 문제행동이 나타날 수 있는 확률을 낮추는 변인을 말한다(Garmerzy, 1991; 최윤정, 2012: 82에서 재인용). 자살생각과 관련된 보호요인은 주로 세 가지 차원, 즉 개인적 요소, 가정적 요소, 외부의 지지체계 요소로 연구되어져 왔다(최윤정, 2012: 82). 개인적 요소로서 자아존중감에 대한 연구(Dukes & Lorch, 1989: 239-251; 이숙, 2003: 155-163; 김순규, 2008: 66-98)와 가정적인 보호요인으로 가족응집력과 가족탄력성에 대한 연구(Tweed & Ryff, 1996: 311-321; Gould & Kramer, 2001: 6-31; 김효정·정미애, 2010: 43-50)가 진행되어져 왔다. 한편, 외부 지지체계의 보호요인으로 사회적 지지와 관련된 연구(Smith, Smoll & Ptacek, 1990: 360-370; Dumont & Provost, 1999: 343-363; 김선아, 2009: 5-27; 정숙희·전명희, 2011: 231-254)가 이루어져 왔다.

이와 함께 최근 들어, 자살생각을 감소시키는 보호요인으로 영적 성숙에 대한 연구 (Garroue et al., 2003: 1571-1579; Huguelet et al., 2007: 188-194; Nadi, Vuksan, & Javoijevic, 2008: 216; Rasic et al., 2011: 848-854)가 주목을 받고 있다. 우울을 경험하는 사람의 신앙이 약화될 때 자살의 위험성이 더욱 높아질 수 있다(김충렬, 2008: 83)는 점은 기독교인의 신앙이 실제적인 삶과 연결되어 삶의 의미와 목적을 갖게 만들고, 그 힘으로 삶을 살아가게 만들도록 영적 성숙이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해 준다. 이러한 맥락에서 기독교 대학생들이 경험하는 심리사회적인 위기의 순간으로부터 자신의 삶을 지켜내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영적 성숙에 대한 탐색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대학생의 자살관련 연구에서 우울과 자살생각의 관계에서 자살생각을 경감시키는 보호요인에 대해 탐색한 연구는 문제음주의 조절효과를 분석한 연구(윤명숙·이효선, 2012: 109-137)와 부정적 정서와 사회적응의 매개효과를 분석한 연구(김민경, 2011a: 101-129), 레질리언스의 매개효과를 분석한 연구(김민경, 2011b: 109-127)가 있으나, 영적 성숙의 조절효과를 검증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또한 전반적으로 기독교 대학생의 자살관련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고, 자살예방을 위한 목회상담이나 신앙적 개입의 중요성을 언급한 연구(김충렬, 2008: 63-98; 이은규, 2010: 259-285)는 있으나, 기독교 대학생의 영적건강이나 영적 성숙이 실제적으로 자살예방을 위한 보호요인임을 실증적으로 입증한 연구도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우울을 경험하는 기독교 대학생에게 있어서 영적 성숙이 구체적으로 그들에게 삶의 의미와 목적을 제시함으로써 자살생각을 막을 수 있는 보호요인으로서 조절효과가 있는지를 검증하는 것은 교회와 기독교 대학이 기독교 대학생들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혀주는 데 있어서 매우 의미 있는 일일 것이다. 또한 기독교 대학의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통해 이들을 교육하고 건강한 기독교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지켜 나가며, 삶의 의미와 목적을 갖도록 영적 성숙을 이루도록 돕기 위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그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독교 대학생의 자살생각을 완화시키기 위한 보호요인을 영적 성숙으로 설정하고, 기독교 대학생의 우울이 자살생각을 유의미하게 예측하는지를 파악하고, 나아가서 우울을 경험하고 있는 기독교 대학생의 영적 성숙이 자살생각을 경감시키는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연구의 목적을 바탕으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기독교 대학생들의 우울은 자살생각을 유의미하게 예측하는가?

연구문제 2. 기독교 대학생들의 우울과 자살생각의 관계에 있어서 영적 성숙은 조절변수로서의 역할을 하는가?

II. 문헌고찰

1. 기독교 대학생의 자살생각

청소년 후기와 성인초기에 해당하는 대학생은 성숙의 과도기적 단계에 있고, 부모로부터 독립을 피하고 자기에 대한 인식과 가치 추구에 힘쓰는 시기이며 성인보다 좌절 경험이나 감정, 자존심을 위협하는 생각 등을 견디는 자아강도가 약하여 인지적 미성숙, 정서적 예민함, 충동성, 부족한 스트레스 대처능력 등으로 자살충동에 취약한 특성을 가진다(박은영, 2004: 82). 이들이 당면하고 있는 현대사회는 보다 경쟁적이며 변화의 속도가 빠르며 성공에 대한 압력이 많으며 특히, 최근 취업난으로 인하여 많은 대학생들이 졸업 후 진로문제와 관련하여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양경미·방소연·김순이, 2012: 42) 이는 대학생들을 자살로 몰아가는 위험성을 안고 있다. 또한 현대의 대학생들은 좌절과 결핍, 슬픔과 고통에 대한 수용성이 상대적으로 낮아 작은 좌절에도 정서적으로 취약하여 복잡한 사회적 상황에 처하면 감당하기 어려움으로 인한 도피책으로 자살을 고려하거나 충동적으로 자살을 시도할 수 있으며(김정진, 2009: 414), 우리나라 대학생의 사망원인 중 1위가 자살이라는 현실은 대학생들이 겪고 있는 심리적·사회 환경적인 어려움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입증해 준다. 노명선 외의 연구(2007: 38)에서는 880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평생 동안 대학생들의 39.2%가 자살사고를, 4.7%가 자살계획을, 3.0%가 자살시도를 해본 적이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고, 6.7%의 학생들이 최근 1달 동안에 자살사고의 경험이 있음을 밝혔다. 대학생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로 우울, 무망감 등의 정신건강과 관련이 높고(양경미·방소연·김순이, 2012: 42), 자살시도 경험이 있고 우울과 불안수준이 높으며, 생활기능이 낮은 학생일수록 자살생각을 많이 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김정진, 2009: 417).

대학생의 자살에 대한 연구를 위해서는 자살생각에 대한 접근에서부터 이루어져야

한다. 자살생각(suicidal ideation)은 자살시도(suicide attempt), 자살수행(completed suicide)과 같은 연속적 과정개념으로 보고 자살행동(suicidal behavior)으로서 포괄하여 적용한다(김정진, 2009: 417). 자살충동이나 자살생각이 반드시 자살시도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나 자살에 대한 한 가지 예언지표로 활용될 수 있다. 또한 자살생각이 높은 집단이 더 낮은 집단보다 7배 이상 자살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는 보고는 자살위험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자살생각에 대한 조사가 타당함을 말해준다(김정진, 2009: 417).

자살문제에 있어서 기독교 대학생도 예외일 수 없다. 기독교 대학생의 경우, 일반 대학생들이 경험하는 심리적·사회적 과제는 물론 영적인 발달을 이루고, 기독교적 가치관을 정립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이다. 특히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바른 자아개념을 가지고, 기독교 신앙에 근거한 삶의 목표를 세우고 긍정적인 자아상을 갖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업이다(박은영, 2004: 81). 기독교 대학생이 경험하는 스트레스와 자살생각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정숙희·전명희, 2011: 244)에서 스트레스 하위영역인 경제문제, 이성과의 관계, 교수와의 관계, 가족문제, 장래문제, 가치관 문제, 학업 문제, 친구와의 관계 중에서 가족과의 관계에 이어 가치관 문제로 인한 스트레스가 자살생각을 가장 유의미하게 예측하였다. 기독교 대학생의 경우 현실적인 문제보다 가치관 문제로 인한 괴로움이 자살생각에 이르도록 만드는 더 직접적인 요인이 된다는 이러한 결과는 기독교 대학생에게 있어서 기독교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신앙적 가치관을 제대로 정립하며 그것이 삶과 통합되어지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업임을 시사해 주는 결과이다. 또한, 우울과 같은 정신건강상의 어려움을 겪는 기독교 대학생의 경우 신앙이 무력화될 수 있고, 신앙인이라도 자신이 열등하고 비참하게 여겨지고, 삶이 매우 힘겹고 고통스럽게 느껴지며, 비관적인 생각을 하게 되어 자살을 시도하는 경우가 있다(김충렬, 2008: 83). 한편, 최지영(2012: 244)의 연구에서는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는 대학생과 무교인 대학생 집단을 비교한 결과 그 두 집단의 자살생각 정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는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곧 자살생각이 낮음을 나타내는 기준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기독교 대학생들의 자살생각에 대해 금기지만 할 것이 아니라 교회를 비롯한 신앙교육기관에서의 적극적인 대응마련이 필요함을 제시해 주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2. 우울과 자살생각

기독교 대학생의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자살생각에 이르게 하는 위험요인을 확인하여 자살생각과 자살시도를 하려는 이들을 조기에 발견하여 자살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할 수 있도록 돕는 노력이 필요하다. 자살의 원인을 하나의 요인으로 설정하기는 매우 어려우나, 우울이 자살을 예측하는 위험요인으로 가장 많이 보고되고 있다(강상경, 2010: 67; 윤명숙·이호선, 2012: 109; Oliffe et al, 2012: 506). 우울은 슬픈 감정, 외로움의 정서적 증상으로 매사에 의욕과 흥미를 잃게 하고 문제해결능력을 저하시키며, 정서적, 행동·신체적 증상 등의 다양한 기능장애를 가져오고(백선숙 외, 2012: 158), 그 결과 자살을 선택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신민섭 등(1990: 1-19)의 연구에서 절망과 우울이 자살생각에 대해 가지는 효과가 유의미함을 검증하였고, 노명선 외의 연구(2007: 35-40)에서는 자살관련 행동이 전혀 없었던 학생들에 비해 자살관련행동을 한 하더라도 경험한 학생들에게서 평생 동안 주요우울장애나 경도우울장애를 경험한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보고하였다. 특히 자살 사고, 자살계획, 자살시도를 모두 경험한 군의 학생들 중 78.6%가 우울장애를 경험한 것이 확인되었다. 김현순(2009: 203-225)은 청소년 225명을 대상으로 스트레스, 자기효능감, 우울과 자살생각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에서 우울이 자살생각과 가장 관련이 높은 변인임을 보고하였다. 우울이 자살생각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대학생에 대한 연구에서도 동일하게 보고되고 있다. 백선숙 등의 연구(2012: 157-163)에서 대학생 306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대학생들이 경험하는 우울이 가장 자살생각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변수임을 보고하였다. 양경미 등(2012: 41-50)의 연구에서도 대학생 859명을 대상으로 우울이 자살을 가장 많이 예측하는 변수임이 확인되었다.

우울을 자살에 영향을 미치는 정신건강요인으로 보고한 국외연구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자살과 관련된 요인을 검증한 19개의 논문에 대한 메타 분석한 연구(Hawton, 2013: 17-28)에서는 성별에 있어서는 남성이 더 자살률이 높았고, 정신병적 가족력, 이전 자살시도 경험, 우울, 무망감, 불안이나 알코올이나 약물남용이 자살의 위험요인임을 밝혔다. 한편, 정신건강 요인 중에서는 우울이 가장 자살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킹(King, 1990: 289-294)은 자살시도경험이 있는 여성 19명과 자살시도경험이 없고 인구사회학적 배경이 자살시도경험이 있는 집단과 비슷한

대상 21명의 차이를 비교한 결과 자살시도경험이 있는 여성이 높은 우울수준을 경험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채브롤 등(Chabrol, Rodgers & Rousseau, 2007: 587-600)은 1057명의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에게 있어서 우울한 감정이 자살사고를 예측하는 주요변인임을 보고하였다. 한편, 아동·청소년기의 우울경험이 자살에 영향을 미친다는 종단연구(Myrna, Martin, & Hammond, 1993: 21-27)의 결과는 우울이 자살의 위험요인임을 시사해 주고 있다. 930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Miotto & Preti, 2007: 218-224)에서는 섭식장애와 자살생각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울과 공격성이 완전매개하고 있음을 보고하였다. 레미스와 레스터(Lemis & Lester 2013: 62-77)는 자살생각의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의 남·녀 대학생의 차이에 대한 연구를 통해 우울이 여학생의 자살생각에 더 큰 위험요인으로 작용함을 밝혔다.

위의 선행연구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학생들의 자살사고나 자살시도가 일과성으로 우발적으로 발생하기 보다 우울장애와 같은 정신적 문제와 동반되어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노명선 외, 2007: 40), 기독교 대학생들의 자살예방을 위해서는 먼저 교회나 학교차원에서 대학생들의 정신건강영역에 대한 사정(assessment)과 이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3. 영적 성숙과 자살생각

기독교 대학생의 영적 성숙은 삶의 분명한 목적과 방향을 제시하고 의미를 부여하며 삶의 목적을 역동적으로 추구하게 하는 내적인 힘이 된다(전요섭, 2012: 279). 엘리슨(Ellison, 1983: 330)은 영적 성숙을 인간의 전인성을 회복시키는 하나님, 자신, 사회 환경과의 관계에 있어서 긍정적인 삶의 태도로 정의하였고,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삶이 활기차고 목적적이며, 충만한 느낌을 갖는다고 하였다. 한편,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태도, 자신의 삶에 대한 통찰력, 신앙이 삶에 주는 의미 등에 긍정적으로 동의할수록 그는 영적 성숙도가 높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이준선, 2012: 35). 한편, 슬래터(1999)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의 특징에 대해 1) 자발적이면서 자기훈련이 되어 있다. 2) 자신의 신앙에 대해 비판적으로 상고한다 3) 교리주의에 빠지지 않으면서도 신앙에 대해 확고하다. 4) 자신의 정체성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정의한다. 5)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덜 성숙한 사람보다 하나님과 더 가깝고 깊은 관계를 가진다. 6) 신앙의 믿음과

신앙적 실천이 삶속에서 통합되어진다. 7) 그의 신앙을 표현하는데 제도적인 구조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8) 분명한 영적 목표가 있고, 이를 기초로 삶을 영위한다. 9) 하나님과 규칙적인 교제의 시간을 가지며 이런 시간이 영적 성장에 필요함을 인식한다. 10) 자신의 영적 은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김홍근, 2003: 185-186에서 재인용). 따라서,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교리주의에 빠지지 않으면서도 신앙에 대해 확고하여, 신앙의 실천을 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일상생활 속에서 삶으로 나타나, 은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하나님과 규칙적인 교제의 시간을 가지며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다(이준선, 2012: 36).

이러한 영적 성숙은 부정적인 처지와 환경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삶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와 내면의 조화를 이루게 되며,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케 하기 때문에(강은실 외, 2004: 190) 자살생각을 경감시키는 중요한 보호요인의 역할을 하게 된다. 기독교 대학생의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와 우울의 관계에 대한 연구(황혜리·류수정, 2006: 204)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에 충분하다고 믿을수록 우울 정도가 낮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손상되지 않는 자기의 가치성과 하나님으로부터 무조건적이고 계속적으로 용납 받고 있다는 안정성을 가질 때 정신적 문제가 치유될 수 있다고 보고하여 기독교 대학생이 건강한 하나님 이미지를 갖도록 하는 것, 즉 영적인 성숙에 이르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영적 성숙이 자살관련요인들을 경감시키는 보호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밝힌 선행연구는 다음과 같다. 강은실 외(2004: 190-199)는 청소년의 자살의도와 우울, 영적 안녕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에서 영적 안녕과 자살의도가 부적 상관관계가 있음을 밝혔다. 조하와 신희천의 연구(2009: 1011-1026)에서는 대학생의 생활사건 스트레스와 자살생각과의 관계에 있어서 개인적 의미와 영적 의미를 각각의 매개변인으로 설정하고 분석한 결과 두 변인 모두 매개효과가 있었고, 개인적 의미와 영적 의미를 모두 투입하여 분석하였을 때 개인적 의미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고, 영적인 의미는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영적인 의미의 손상이 개인적 의미의 손상보다 자살사고에 더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보고하였다. 백옥경(2010: 48)은 기독교 신앙교육이 자살사고의 감소를 가져오며 기독교신앙이 우울 및 우울에 의한 자살사고를 낮춘다고 보고하였다. 박재연 등(2010: 81-105)의 연구에서는 한국인의 성인기와 노년기에 있어서 실존적 영성이 스트레스와 자살충동 사이를 매개하여 완화시키는 요인으로 유의미

함을 밝혔고, 개인의 존재가치와 삶의 의미를 깨닫고 극단적인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이를 극복할 수 있도록 영적 발달을 돕는 구체적인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노력해야 함을 밝혔다. 최순옥과 김숙남(2011: 190-199)의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영성수준이 높을수록 자살생각을 적게 하는 것으로 나타나 영성이 자살생각을 감소시키는 보호요인임을 확인하였다. 한편, 영성의 하위요인 중에서는 삶의 의미와 목적, 연결성 요인이 주요함을 보고하였고, 대학생들의 영성수준을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과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할 수 있는 의미교육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김웅수와 조성희(2012: 117-143)는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자살생각과의 관계에서 영성적 탄력성이 부분적으로 매개한다는 연구결과에 따라 학교와 교회에서의 영성개발 프로그램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최지영(2012: 237-262)은 대학생들의 우울, 영적안녕과 자살생각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에서 대학생의 우울 정도보다 영적안녕, 즉 실존적 안녕 정도가 자살생각을 더 유의미하게 예측함을 보고하였다. 즉, 위협요인으로서의 우울이 자살생각을 증가시키는 것보다 보호요인으로서의 실존적 안녕 정도가 자살생각을 경감시키는 정도가 더 크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기독교 대학생들이 형식적 신앙보다 신앙생활을 통해 삶의 의미를 찾도록 돕는 일에 주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김충렬, 2008: 91).

한편, 다수의 국외 연구들에서도 영적 성숙이 자살생각을 경감시키는 보호요인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보고하였다. 먼저, 게루트 등(Garrouette et al, 2003: 1571-1579)은 1456명의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자살행동과 영성의 관계를 탐색한 결과 영성이 매우 중요한 자살행동을 막는 요인임을 밝혔다. 레이식 등(Rasic et al, 2011: 848-854)은 미국 발티모어 지역 주민 1091명을 대상으로 한 종단연구에서 예배참석, 영적 성숙을 위한 노력이 자살시도를 예방하는 보호요인임을 보고하였다. 휴규엘렛 등(Huguelet et al, 2007: 188-194)의 연구에서도 입원한 정신과 환자와 외래환자 모두에게 있어서 신앙심이 자살결정에 중요한 요인임을 밝혔다. 올리프 등(Oliff et al, 2012: 506-514)은 캐나다의 24-50세의 남성 38명을 면접한 결과 신앙심과 도덕적 신념이 자살을 막는 중요한 중재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을 보고하였다. 캐나다 중년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Hong, 2011: 37-52)에서도 영적안녕이 삶의 만족을 예측하는 주요변수임을 보고하였다. 레미스와 레스터의 연구(Lemis & Lester, 2013:62-77)에서 자살생각의 위협요인은 성별 차이가 있었으나 남·녀 대학생의 모두에게 삶의 목적과 이유가 중

요한 보호요인임을 밝혔다.

선행연구의 고찰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영적 성숙이 자살생각을 경감시키는 보호요인의 역할을 한다는 것은 기독교 대학생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성숙에서 하나님, 자신, 사회 환경과의 관계에 있어서 긍정적인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삶의 의미와 목적을 분명히 가질 수 있도록 돕는 개입방안의 모색이 필요함을 시사해 주는 결과이다.

III. 연구방법

1. 조사대상

기독교 대학생의 우울과 자살생각의 관계에서 영적 성숙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본 연구의 목적을 위해 H 대학교 2012학년도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한 신입생 87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2012년 2월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중 일정 시간을 할애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872명 중 본 연구의 대상이 기독교 대학생들의 우울과 자살생각의 관계에서의 영적 성숙의 조절효과를 파악하는 것이므로 기독교 학생 805명이 응답한 내용을 분석하였다.

2. 조사도구

(1) 우울 정도

우울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일반건강척도(Goldberg, 1978)의 한국판 GHQ로 신성인(2001)에 의해 번역되고 표준화된 20문항을 가진 4점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우울증, 불안 장애, 신체적 증상 및 사회적 기피 등에 관한 문항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본 연구에서 우울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이 하위척도를 사용하였다. ‘매우 그렇다(1)’에서 ‘매우 아니다(4)’까지 4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어 있고, 본 연구에서는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 정도가 심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수정하였으며, 신성인(2001)의 연구에서의 이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 α =.89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Cronbach α =.65이었다.

(2) 영적 성숙

영적 성숙척도는 엘리슨(1983)이 개발하여 이준선(2012)이 사용한 척도로 측정하였다. 이 척도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태도, 자신의 신앙에 대한 통찰력, 신앙이 삶에 주는 의미를 측정한다. 본 척도는 '전혀 동의하지 않음(1)에서 '전적으로 동의함(6)'까지 6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어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영적 성숙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이 척도의 신뢰도는 이준선(2012)의 연구에서는 Cronbach $\alpha=.92$ 였고,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 $\alpha=.90$ 이었다.

(3) 자살생각

자살생각 및 심각성의 척도는 Beck Scale for Suicide Ideation(SSI: Beck et al., 1979)과 신민섭 등(1990)의 연구에서 이용한 18문항을 최태산(1997)이 요인분석을 통해 14문항을 선정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전혀 없다(1)'에서 '많이 있다(5)'까지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최태산(1997)의 연구에서의 이 척도의 Cronbach $\alpha = .73$ 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Cronbach $\alpha=.74$ 이었다.

(4) 통제변수

기독교 대학생들의 우울과 자살생각과의 관계에서 영적 성숙의 조절효과를 보다 정밀하게 검증하기 위하여 조사대상자의 성별(남성=0, 여성=1), 신앙생활기간, 경제수준을 통제변수로 설정하였다.

4. 자료분석 방법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을 위해 SPSS 18.0 for Windows 프로그램을 활용하였다. 첫째,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배경, 우울 정도, 영적 성숙정도, 자살생각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기술통계를 실시하였다. 둘째, 성별, 경제수준, 입학전형, 신앙생활 기간, 목회자 자녀여부에 따른 우울, 영적 성숙, 자살생각 정도의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t-test와 ANOVA를 실시하였다. 셋째, 각 변인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관계를 산출하였다 넷째, 본 연구의 주관심인 영적 성숙의 조절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상호작용모형을 알아보기 위하여 위계적 중다회귀분석(Multiple Moderating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즉, 우울을 독립변수로, 자살생각을 종속변수로, 영적 성숙을 조절변수로 설정하여 1단계에서는 우울을 투입하였고, 2단계에서는 독립변수인 우울과 조절변수인 영적 성숙을 투입하였으며, 다음단계에서는 독립변수인 우울과 조절변수인 영적 성숙의 상호작용 항을 투입하여 상호작용 항의 독립적 효과를 살펴봄으로써 조절효과를 분석하였다. 또한 상호작용 항의 다중공선성 문제를 피하기 위하여 평균중심화(mean centering) 방법을 사용하였다. 독립변수와 조절변수의 평균값을 감하여 독립변수, 조절변수, 독립변수×조절변수 간의 상관의 크기를 감소시켜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감소시켰다. 다섯째, 검증된 상호작용 효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단순 기울기 검증을 실시하여 분석하였다.

IV. 연구결과

1.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배경

본 연구의 조사 대상자는 <표1>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남학생이 388명(48.2%), 여학생이 417명(51.8%)이었다. 주관적으로 평가하는 가족의 경제수준을 상·중·하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 상에 해당하는 학생은 165명(20.8%)였고, 중에 해당하는 학생이 512명(64.4%)으로 가장 많았고, 하에 해당하는 학생은 118명(14.8%)이었다. 입학전형을 볼 때, 수시입학 학생이 666명(83.4%), 정시입학 학생이 133명(16.6%)이었다. 재수여부를 살펴본 결과, 재수한 학생이 186명(23.5%), 그렇지 않은 학생이 606명(76.5%)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앙생활을 한 기간을 살펴본 결과¹⁾ 18년 미만인 학생이 169명(25.6%), 18년 이상이 492명(74.4%)로 나타나 많은 경우 모태신앙을 가진 학생들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목회자 자녀여부를 살펴볼 때, 부모님이 목회자인 경우가 168명(21.5%)였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615명(78.5%)인 것으로 나타났다.

1) 조사응답자의 신앙기간의 평균값이 17년 4개월 정도로 나타나 이를 기준으로 18년 미만과 18년 이상 두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표1〉 조사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배경

인적사항	분류	남학생 (388명, 48.2%)	여학생 (417명, 51.8%)	전체 (805명, 100%)	x ²
		N(%)	N(%)	N(%)	
경제수준	상	93(24.2)	72(17.5)	165(20.8)	5.514
	중	238(62.0)	274(66.7)	512(64.4)	
	하	53(13.8)	65(15.9)	118(14.8)	
입학전형	수시입학	298(77.4)	368(88.9)	666(83.4)	18.969***
	정시입학	87(22.6)	46(11.1)	133(16.6)	
재수여부	재수 안함	276(72.8)	330(79.9)	606(76.5)	5.513*
	재수 함	103(27.2)	83(20.1)	186(23.5)	
신앙생활 기간	18년 미만	69(21.9)	100(28.9)	169(25.6)	4.242*
	18년 이상	246(78.1)	246(71.1)	492(74.4)	
목회자 자녀여부	일반자녀	285(76.2)	330(80.7)	615(78.5)	2.328
	목회자자녀	89(23.8)	79(19.3)	168(21.5)	

주 : * $p < .05$, *** $p < .001$

2. 조사대상자의 우울, 영적 성숙, 자살생각의 정도

조사대상자의 우울, 영적 성숙, 자살생각의 정도를 나타낸 결과는 <표2>와 같다. 먼저, 독립변수인 우울 정도는 평균 2.62점으로 우울척도의 중간 값(2점) 보다는 조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조절변수인 영적 성숙정도의 평균은 4.14점으로 본 척도의 중간 값(3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자살생각의 평균은 1.43점으로 중간 값(2.5점)보다는 낮으나, 자살생각의 경우 자살생각의 정도나 심각성보다는 자살생각을 하는 것 자체만으로 유의미하게 살펴보아야 할 주제이기 때문에 자살생각 정도의 경중을 넘어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한편, 우울, 영적 성숙, 자살생각의 왜도와 첨도는 각각 절대 값 3과 8을 넘지 않아 문제가 없었으며, 정규분포 가정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2〉 조사대상자의 우울, 영적 성숙, 자살생각 정도

구 분		평균	표준 편차	최소값	최대값	왜도 (표준오차)	첨도 (표준오차)
독립변수	우울 정도	2.62	.39	1.40	4.0	-.058(.083)	.033(.17)
조절변수	영적 성숙	4.14	.64	1.07	5.80	-.081(.088)	1.77(.18)
종속변수	자살생각	1.43	.40	1.00	4.43	1.91(.084)	6.49(.17)

3. 인구사회학적 배경에 따른 우울, 영적 성숙, 자살생각의 차이

인구사회학적 배경에 따른 우울, 영적 성숙, 자살생각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성별에 따라 우울과 영적 성숙 정도에 있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고, 자살생각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먼저 우울 정도에 있어서 여학생이 남학생이 더 높았고($t=-.4637, p<.001$)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고, 영적 성숙에 있어서도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영적 성숙 정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3.333, p<.01$). 자살생각에 있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지만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조금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수준에 따라서는 우울과 자살생각 정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영적 성숙은 경제수준이 가장 낮은 집단의 영적 성숙 정도가 가장 높았고, 경제수준이 가장 높은 집단의 영적 성숙 정도가 가장 낮았고,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F=4.738, p<.05$). 조사대상자의 입학전형에 따라서는 수시입학과 정시입학 학생의 우울과 자살생각의 차이는 없었으나 영적 성숙 정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는데, 수시입학 학생의 영적 성숙 정도가 정시입학 학생의 영적 성숙 정도보다 높았다($t=2.147, p<.05$). 신앙생활기간에 따른 자살생각의 정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앙생활기간에 따른 우울 정도에도 집단 간 차이는 없었지만 영적 성숙에 있어서는 신앙생활기간이 더 오래된 학생들의 영적 성숙 정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2.150, p<.05$). 마지막으로, 목회자 자녀여부의 집단 간 우울, 영적 성숙, 자살생각 정도의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 목회자 자녀와 일반자녀의 우울, 자살생각 정도의 차이는 없었으나 영적 성숙 정도에 있어서는 목회자 자녀가 일반자녀보다

영적 성숙 정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2.515, p<.05$).

〈표3〉 인구사회학적 배경에 따른 우울, 영적 성숙, 자살생각의 차이

		우울		영적 성숙		자살생각	
		M(SD)	t/F	M(SD)	t/F	M(SD)	t/F
성별	남학생	2.55 (.38)	-4.637***	4.06 (.69)	-3.333**	1.44 (.43)	.765
	여학생	2.68 (.40)		4.21 (.58)		1.42 (.38)	
경제수준	상	2.64 (.44)	.464	4.06 (.76)	4.738**	1.47 (.48)	1.472
	중	2.61 (.39)		4.13 (.61)		1.42 (.38)	
	하	2.60 (.37)		4.30 (.57)		1.42 (.39)	
입학전형	수시입학	2.62 (.39)	.192	4.16 (.64)	2.147*	1.43 (.40)	-.155
	정시입학	2.61 (.63)		4.03 (.63)		1.44 (.41)	
신앙생활 기간	18년 미만	2.63 (.37)	.632	4.01 (.81)	-2.150*	1.45 (.38)	.872
	18년 이상	2.61 (.40)		4.16 (.57)		1.42 (.40)	
목회자 자녀여부	일반 자녀	2.61 (.39)	-.096	4.11 (.65)	-2.515*	1.44 (.41)	1.224
	목회자 자녀	2.62 (.39)		4.25 (.61)		1.40 (.37)	

주 : * $p < .05$, ** $p < .01$, *** $p < .001$

4. 조사대상자의 우울, 영적 성숙과 자살생각의 상관관계

조사대상자의 우울, 영적 성숙, 자살생각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표4>와 같

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울과 자살생각은 정적인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우울과 영적 성숙은 부적상관이 있었으며, 영적 성숙과 자살생각은 부적인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즉, 우울 정도가 심할수록 자살생각이 많고($r=.249, p<.01$), 우울 정도가 높을수록 영적 성숙 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r=-.343, p<.01$). 한편, 영적 성숙과 자살생각이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내 영적 성숙정도가 높을수록 자살생각 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r=-.187, p<.01$).

〈표4〉 우울, 영적 성숙, 자살생각의 상관관계

	우울	영적 성숙	자살생각
우울			
영적 성숙	-.343**		
자살생각	.249**	-.187**	

주: ** $p < .01$

5. 우울과 자살생각과의 관계에서 영적 성숙의 조절효과

조사대상자의 우울과 자살생각과의 관계에서 영적 성숙이 우울의 영향력을 조절할 수 있는지 알아대상자의 우울과 자살생각과의 관계에서 영적 성숙이 부적조절효과로 작용하고 보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통해 검증하였다. 먼저, 각 변수들의 다중공선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평균중심화 과정을 거친 후, 통제변수와 독립변수인 우울을 투입하고(Model 1), 조절변수인 영적 성숙을 투입한 후(Model 2), 독립변수인 우울과 조절변수인 영적 성숙의 상호작용 항을 추가적으로 투입하였다(Model 3).

먼저, 모델 1에서 독립변수인 우울을 투입한 결과 우울이 자살생각을 유의미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233, p<.001$). 모델 2에서 독립변수인 우울과 조절변수인 영적 성숙을 함께 투입한 결과 영적 성숙 또한 자살생각을 유의미하게 예측하였다($\beta=-.136, p<.001$). 모델 1에 비해 모델 2의 설명력이 1.4% 증가하였다. 마지막으로 영적 성숙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우울과 영적 성숙의 상호작용 항을 투입한 결과 조사대상자의 우울과 자살생각과의 관계에서 영적 성숙의 조절효과는 주 효과를 통제된 후에도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고($\beta=-.079, p<.05$), 이때 영적 성숙의 조절효과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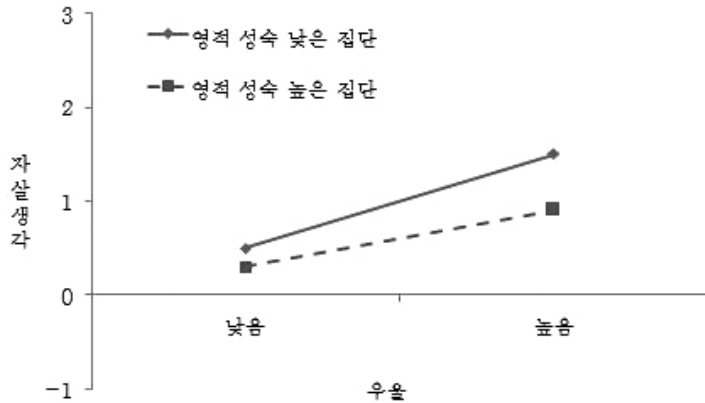
0.5%의 증분설명력을 보여주었다. 즉, 조사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독 대학생이 우울로 인해 자살생각을 가질 수 있으나 영적 성숙도가 높으면 자살생각을 경감할 수 있음을 확인해 주는 결과이다.

우울과 영적 성숙의 상호작용효과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우울과 영적 성숙의 평균을 중심으로 낮음, 높음 집단으로 구분하여 단순기울기 검증을 실시하였다. 자살생각에 대한 우울과 영적 성숙의 상호작용은 <그림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울수준에 따라 영적 성숙이 높은 기독 대학생이 영적 성숙이 낮은 기독 대학생에 비해 자살생각 정도가 낮고 그 기울기가 완만함을 알 수 있다.

<표5> 우울과 자살생각의 관계에서 영적 성숙의 조절효과

항목		모델1		모델 2		모델3	
		B (S,E)	β	B (S,E)	β	B (S,E)	β
통제 변수	성별	-.0484 (.028)	-.059	-.038 (.029)	-.049	-.038 (.029)	-.048
	신앙생활기간	-.002 (.002)	-.027	.001 (.003)	.016	.001 (.003)	.014
	경제수준	.012 (.012)	.223	.010 (.012)	.028	.009 (.012)	.025
독립 변수	우울(A)	.623 (.101)	.223***	.187 (.037)	.190***	.194 (.037)	.198***
조절 변수	영적 성숙(B)			-.083 (.023)	-.136***	-.081 (.023)	-.132**
	A×B					-.120 (.055)	-.079*
R ²		.051		.067		.073	
Adj R ²		.046		.060		.065	
ΔR ²				.014		.005	
F(Sig)		10.522***		10.207***		9.344***	

주 : * $p < .05$, ** $p < .01$, *** $p < .001$



〈그림1〉 우울과 영적 성숙의 상호작용효과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기독교 대학생의 우울이 자살생각을 유의미하게 예측하는지를 확인하고, 영적 성숙 정도가 자살생각을 조절하는지 그 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기독교 대학생들의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 교회와 기독교 대학의 역할이 무엇이어야 하는지 그 방향성을 모색하기 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H 대학교 신입생 중 기독교 학생 80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구사회학적 배경에 따른 우울, 영적 성숙, 자살생각의 차이에서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우울 정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았고, 영적 성숙도 여학생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았으며, 자살생각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지만 남학생이 조금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실제 자살자의 수는 남학생이 더 많지만 자살생각에서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다는 선행연구의 결과(Wilcox & Anthony, 2004: 53-67; 노명선 외, 2007: 35-40; 양경미·방소연·김순이, 2012: 41-50)와는 차이가 있었는데, 본 연구의 대상이 기독교 대학생이기 때문에 선행연구와는 다른 양상을 보일 수 있다고 판단된다. 경제수준에 따라서는 경제수준이 낮을수록 영적 성숙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우울과 자살생각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며, 수시입학생이 정시입학생보다 영적 성숙 정도가 유의미하게 높았고, 신앙생활기간이 길수록 영적 성

숙이 높았으며, 목회자 자녀가 일반자녀보다 영적 성숙이 높았다. 입학전형, 신앙생활 기간, 목회자 자녀여부에 따른 우울과 자살생각의 정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특히 신앙생활기간에 따른 우울과 자살생각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는데, 이는 신앙생활 기간에 따른 자살생각의 정도의 차이가 없음을 보고한 백옥경(2010: 82)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하며, 이러한 결과는 신앙생활을 한 기간이 기독교인을 우울과 같은 정신건강 영역과 자살생각에서 자유롭게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다.

둘째, 우울, 영적 성숙, 자살생각의 상관관계를 살펴 본 결과, 우울과 자살생각에는 정적인 상관, 우울과 영적 성숙은 부적인 상관, 그리고 영적 성숙과 자살생각에는 부적인 상관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기독교 대학생의 우울 정도가 정적으로 유의미하게 예측하였다. 즉, 기독교 대학생이 우울할수록 자살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우울을 자살생각의 위험요인으로 밝힌 선행연구 (King, 1990: 289-294; 노명선 외, 2007: 35-40; 김현순, 2009: 203-225; 강상경, 2010: 67-100; 양경미·방소연·김순이, 2012: 41-50; 윤명숙·이효선, 2012: 109-137; Oliffe et al, 2012: 506-514)의 결과를 지지하는 것이다.

넷째, 기독교 대학생의 우울과 자살생각과의 관계에 있어서 영적 성숙 정도가 일부 조절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즉, 기독교 대학생은 우울할수록 자살생각이 증가하는데 이를 영적인 성숙이 부적으로 조절하여 자살생각을 경감시키는 보호요인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영적인 성숙이 자살생각을 경감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음을 밝힌 선행연구(Garroue et al., 2003: 1571-1579; Huguelet et al., 2007: 188-194; Nadi, Vuksan, & Javojevic, 2008: 216; 강은실 외, 2009: 190-199; 조하·신희천, 2009: 1011-1026; 최순옥·김숙남, 2011: 190-199; Rasic et al., 2011: 848-854; 최지영, 2012: 237-262; Lemis & Lester, 2013: 62-77)의 결과를 지지한다. 이를 통해 기독교 대학생들에 대한 자살예방을 위한 접근법으로 영적 성숙을 기하도록 돕는 노력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볼 때, 기독교 대학생들이 경험하는 복잡한 심리사회적인 압력과 정신적 고통으로 인해 삶을 포기하지 않도록 무엇보다도 기독교 세계관에 근거한 긍정적 자아상을 갖도록 교회와 기독교 대학이 함께 노력해야 함을 알 수 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할 수 있다.

첫째, 기독교 대학생들의 정신건강문제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자살은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하므로, 기독교 대학생들을 자살에 이르게 하는 위험요인에 노출된 정도를 파악하여 개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교회와 대학이 기독교 대학생들의 정신건강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정신건강 정도를 미리 사정(assessment)하여 사정된 내용들을 바탕으로 한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영적 성숙이 우울을 경험하는 기독교 대학생의 자살생각을 경감시키는 보호요인이 확인되었으므로, 교회와 기독교 대학에서는 기독교 대학생이 영적 성숙에 이르도록 돕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휴먼 서비스 영역에서 강점관점에 근거한 탄력성 증진 개입방법이 강조되고 있는 것처럼, 기독교 대학생의 신앙이 삶과 통합되어 지고, 목적을 갖고 삶을 살아갈 내면의 힘을 갖도록 하기 위해 영성 탄력성 증진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자살의 예방적 차원에서 교회를 비롯한 신앙교육기관에서 기독교적 세계관에 입각한 자살예방교육 내용을 개발하고 그에 따른 정기적인 자살예방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기독교 세계관은 위기에 처한 기독교 청년들에게 문제해결의 새로운 통로가 되어 아무리 어려운 환경에서도 자신이 살아야 할 이유를 알게 하며 문제 뒤에 숨은 하나님의 큰 그림을 알아볼 수 있는 지혜와 믿음이 생기도록 돕고(박은영, 2004: 89), 일반적인 시각에서 자살을 보는 것에서 벗어나 기독교 관점에 근거하여 자기정체성을 찾고, 하나님이 부여하신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도록 돕는 교육의 내용과 방향을 일관성 있게 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살관련 행동에 대해 금기시만 할 것이 아니라 왜 자살을 해서는 안 되는지에 대한 기독교적 관점에서의 내용 정립과 교육이 필요할 것이다.

넷째, 기독교 대학생들이 삶의 공허감을 해결하고, 인생에서의 문제를 긍정적으로 대처하며, 기독교적 세계관에 의해 삶과 죽음의 의미를 탐색하고,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개입방법의 하나로 의미치료를 실시할 것을 제안한다. 실제로, 의미치료는 신앙의 성숙과 긍정적 종교적 대처의 향상에 도움을 주는 중의 하나로 활용되어지고 있다(최명심·손정락, 2009: 854).

다섯째, 대학 내의 학생상담센터의 기능보강을 통하여 자살위험을 평가하고 효과적인 자살예방 개입을 할 수 있는 정신건강 전문가들을 고용하여 적극적으로 기독교 대학생들의 자살문제에 관여할 수 있는 환경조성이 필요할 것이다.

기독교 대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교회를 비롯한 신앙 교육기관이 자살문제 해결을 위해 발 벗고 나서서 더욱 적극적으로 생명을 지켜내는 역할을 해야 하겠다. 또한 우울을 경험하는 기독교 대학생들이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도록 우울과 자살생각의 관계에서 자살생각을 경감시킬 수 있는 보호요인으로 다른 보호요인에 대한 다각적이고, 심도 깊은 연구가 계속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한 기독교 대학의 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이기 때문에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기독교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자살 관련 연구라는 점과 우울을 경험하는 기독교 대학생들의 영적 성숙을 통해 자살생각을 경감시킬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한 바, 자살 문제에 대한 실천적 함의를 제공하는 실증적인 기초자료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참고문헌

- 강상경 (2010). “우울이 자살을 예측하는가?: 우울과 자살태도 관계의 성별·연령 차이.” 『사회복지연구』, 41(2). 67-100.
- 강은실·송양숙·조향숙·강성년 (2004). “청소년의 자살의도, 우울, 영적안녕과의 관계.” 『정신강호학회지』, 13(2). 190-199.
- 김민경 (2011a). “대학생의 우울과 자살생각의 관계-부정적 정서와 사회적응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18(2). 101-129.
- _____ (2011b). “대학생의 가족학대경험, 우울과 레질리언스 및 자살생각의 관계.”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6(3). 109-127.
- 김선아 (2009). “초등학교 시기의 심리사회 요인과 중학생 시기의 자살생각간의 관계: 스트레스, 우울감과 사회적 지지를 중심으로.” 『한국가족복지학』, 14(3). 5-27.
- 김순규 (2008). “청소년 자살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과 보호요인.”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32. 66-98.
- 김용수·조성희 (2012). “청소년기 스트레스가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영성적 탄력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교회사회사업』, 20. 117-143.
- 김정진 (2009). “대학생의 자살생각 관련 요인 연구: 자살시도경험, 정신건강, 심리사회적 문제를 중심으로.” 『정신보건 사회사업』, 32. 413-437.
- 김현순 (2009). “청소년의 스트레스, 자기효능감, 우울과 자살생각의 관계.” 『한국청소년연구』, 20(1). 203-225.
- 김홍근 (2003). “기독교영성에 관한 대상관계이론 및 자기심리학적 연구.” 박사학위논문. 호서대학교.
- 김효정·정미애 (2010). “대학생의 가족기능과 자기효능감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한국간호교육학회지』 16(1). 43-50.
- 김충렬 (2008). “기독교인의 자살과 그 대책-목회상담의 관점에서-.” 『신학과 실천』, 16. 63-98.
- 노명선·전홍진·이해우·이효정·한성구·함봉진 (2007). “대학생들의 자살관련행동에 관한 연구.” 『신경정신의학』, 46(1). 35-40.
- 박광배·신민섭 (1990). “고등학생의 대학입시 목표와 자살생각.”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9. 20-32.
- 박명실 (2005) 대학생 자살위험 집단유형의 분류, 평가 및 집단 상담치료 적용. 박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 박은영 (2004). “청년기의 자살생각에 대한 성경적 상담의 접근-기독교 대학생 중심으로-.” 『성경과 상담』, 4. 79-93.
- 박재연·임은옥·윤현숙 (2010). “한국인의 스트레스가 자살충동에 이르는 경로분석: 실존적 영성, 가족지지, 우울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41(4). 81-105.
- 백선숙·하은호·류언나·송미승 (2012). “대학생의 생활스트레스와 우울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아동간호학회』, 18(4). 157-163.
- 백옥경 (2010). 기독교유무별 고등학생의 우울증에 의한 자살사고와 신앙적 및 정

- 의적 변인 연구. 박사학위논문. 고신대학교
보건복지부·한국자살예방협회 (2011). 자살예방기본계획.
신민섭·박광배·오경자·김중술 (1990). “고등학생의 자살성향에 관한 연구: 우울-절망-자살간의 구조적 관계에 대한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9(1). 1-19.
신성인 (2001). 한국판 일반정신건강척도(KGHQ)의 개발에 관한 연구 I. 『한국사회복지학』. 46. 210-235.
양경미·방소연·김순이 (2012). “대학생의 자살생각 영향요인.” 『스트레스연구』. 20(1). 41-50.
윤명숙·이효선 (2012). “대학생의 우울, 취업스트레스가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문제음주의 조절효과.” 『청소년학연구』. 19(3). 109-137.
이경진·조성호 (2004). “청소년 자살 고위험 집단의 심리적 특성.” 『한국심리학회지』. 16(4). 667-685.
이 숙 (2003). “청소년기 여고생의 자살위험성, 자아존중감 및 자아기능 강도 연구.” 『정신간호학회지』. 12(2). 155-163.
이은규 (2010). “기독교소년 자살예방에 대한 고찰.” 『신학과 실천』. 23. 259-285.
이은희 (2004). “대학생들이 경험하는 생활스트레스와 우울: 공변량 구조모형을 통한 대처방식의 조절효과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9(1). 25-48.
이준선 (2012). “기혼 기독교인의 원가족 경험이 가족기능성에 미치는 영향: 영적 성숙도를 매개변인으로.” 박사학위논문. 총신대학교.
장춘미 (2009). “대학생 자살관련 요인과 자살예방을 위한 개입방안 모색.” 『학생생활연구』. 22. 59-71.
전요섭 (2012). “기독교 대학생의 가정적 자아존중감이 부양의식에 미치는 영향-영적 안녕감과 불안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신앙과 학문』. 17(3). 271-292.
정숙희·전명희 (2011). “기독교 대학생들의 스트레스와 자살생각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신앙과 학문』. 16(2). 231-254.
조성돈·정재영 (2008). 『그들의 자살, 그리고 우리』. 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조하·신희천 (2009). “생활사건 스트레스가 자살사고에 미치는 영향: 삶의 의미의 매개효과와 조절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1(4). 1011-1026.
최명심·손정락 (2009). “의미치료 집단 프로그램이 내재적 종교 성향, 긍정적 종교 대처, 삶의 의미 및 정신건강에 미치는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8(3). 853-875.
최순옥·김숙남 (2011). “대학생의 자살생각과 영성.” 『한국간호교육학회지』. 17(2). 190-199.
최윤정 (2012). “대학생의 스트레스와 자살생각과의 관계에 작용하는 보호요인의 조절효과.” 『한국청소년연구』. 23(3). 77-104.
최지영 (2012). “대학생의 영적안녕, 우울이 자살사고에 미치는 영향: 기독교 집단과 무교 집단의 비교.” 『한국기독교상담학회지』. 23(1). 237-262.
최태산 (1997). “청소년 비행과 자살생각에 미치는 가족 행동의 심리적 변인간의 인과적 분석.” 박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
통계청 (2012). 2011년 사망 및 사망원인 통계결과. 서울:통계청.
황혜리·류수정 (2006). “기독교 대학생의 하나님 이미지와 우울과의 관계.” 11. 191-122.

- Chabrol, H., Rodgers R., & Rousseau, A. (2007). "Relationship between suicidal ideation and dimensions of depressive symptoms in high school students." *Journal of Adolescence* 30(4). 587-600.
- Dukes, N. L. & Lorch, B. (1989). "The effect of school, family, self-concept and deviant behavior on adolescent suicide ideation." *Journal of adolescence* 12. 239-251.
- Ellison. (1983). "Spiritual well-being: Conceptualization and measurement." *Journal of Psychology and Theology* 11(4). 330-340.
- Dumon, M. & Provost, M. A. (1999). "Resilience in adolescents: Protective role of social support, coping strategies, self-esteem, and social activities on experience of stress and depression."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9(3). 343-363.
- Ellison, C. W. & Smith, J.(1991). "Toward an integrative measure of health and well-being." *Journal of Psychology and Theology*. 19(1). 35-48.
- Garrouette, E. V., Golden, J., Beals, Janette., Herrell, Richard., Manson, S. M. & the AI-SUPERPFP Team. "Spirituality and attempted suicide among American Indians." *Social Science & Medicine* 56(7). 1571-1579.
- Gould, M. S. & Kramer, R. A. (2001). "Youth suicide prevention." *Suicide and life-threatening behavior* 31. 6-31.
- Hawton, K., Comabella, C., Haw. C. & Saunders, K. (2013). "Risk factors for suicide in individuals with depression: A systematic review article." *Journal of Affective Disorders* 147(1-3). 17-28.
- Hong, W. H. (2011). "Relationship between spiritual well-being and life satisfaction for Canadian middle-aged adults." *Journal of Christian Education & Information Technology* 20. 37-52.
- Huguelet, P., Mohr, S., Jung, V., Gillieron, C., Brandt, P. & Borrás, L. (2007). "Effect of religion on suicide attempts in outpatients with schizophrenia or schizoaffective disorders compared with inpatients with non-psychotic disorders." *European Psychiatry* 22(3). 188-194.
- Kang, G. N. (2001). "Psychometric analyses of spiritual well-being scale and spiritual maturity index." *Journal of Christian Education & Information Technology* 2. 192-215.
- King, C. A., Raskin, A., Gdowski, C. L. & Oipari, L. (1990). "Psychosocial factors associated with urban adolescent female suicide attempts."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 Adolescent Psychiatry* 29(2). 289-294.
- Lemis, D. A. & Lester, D. R. (2013). "Gender differences in risk and protective factors for suicidal ideation amo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College Student Psychotherapy* 27(1). 62-77.
- Myrna, U. R., Martin, J. A., & Hammond, R. W. (1993). "Childhood depression and risk of suicide: A preliminary report of a longitudinal study."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 Adolescent Psychiatry* 32(1). 21-27.

- Miotto, P. & Preti, A. (2007). "Eating disorders and suicide ideation: the mediating role of depression and aggressive." *Comprehensive Psychiatry* 48(3). 218-224.
- Nadi, S., Vuksan, B., & Javojevic, M. (2008). "Cortisol, spirituality and spiritual well-being in Croation war veterans suffering from PTSD." *European Psychiatry* 23(2). S216.
- Oliff, J. L., Ogrodnick, J. S., Bottoff, J. L., Johnson, J. L. & Hoyak, K. (2012). "You feel like you can't live anymore: Suicide from the perspectives of Canadian men who experience depression." *Social Science & Medicine* 74(4). 506-514.
- Smith, R. E. & Smoll, F. L., & Ptacek, J. T. (1990). "Collective self-esteem and ingroup bias." *Psychological Development* 11. 360-370.
- Tweed, S. H. & Ryff, C. D. (1996). "Family climate and parent-child relationships: Recollections from a nonclinical sample of adult children of alcoholic fathers." *Research in nursing & health* 19. 311-321.
- Rasic, D., Robinson, J. A., Bienvenu, O. J. & Sareen, J. (2011). "Longitudinal relationships of religious worship attendance and spirituality with major depression, anxiety disorder, and suicidal ideation and attempts: Findings from the Baltimore epidemiologic catchment area study." *Journal of Psychiatric Research* 45(6). 848-854.
- Wilcox, H. C. & Anthony, J. C. (2004). "The development of suicide ideation and attempts: an epidemiologic study of first graders follow into young adulthood." *Drug and Alcohol Dependence* 76S: 53-67.

ABSTRACT

Moderating Effect of Spiritual Maturity in the Relationship Between Depression and Suicidal Ideation of Christian College Students

Sook-Hee Jung(Handong Global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d the moderating effect of spiritual maturit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depression and suicidal ideation of Christian college students. For this research, total 805 Christian students participated in a survey from a Christian college. The survey results revealed a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depression and suicidal ideation, a negative correlation between depression and spiritual maturity, and a negative correlation between spiritual maturity and suicidal ideation. Depression predicted suicidal ideation significantly. In addition, spiritual maturity moderated between depression and suicidal ideation of Christian college students. Spiritual maturity can decrease suicidal ideation of Christian college students with depression. These findings indicate that the level of depression influences the level of suicidal ideation of Christian college students, so it needs to assess the level of depression of students. And spiritual maturity decreases suicidal ideation of Christian college students with as a protective factor, so it needs to develop the programs to increase spiritual maturity for Christian college students.

Key Words: Christian college students, suicidal ideation, depression, moderating effect, spiritual maturity

